

#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fficulties and support measures of FTA utilization in Korean Trading Firms

정재승(Jason Chung)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연구 조교수, 주저자

정윤세(Yoon Say Jeong)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목 차

I. 서론	V. FTA 활용전략과 지원방안
II. 선행연구 고찰	VI. 결 론
III. FTA의 확산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참고문헌
IV. FTA 활용실태와 교육·컨설팅 수요 실증분석	ABSTRACT

##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FTA 활용률, 무역기업, FTA 애로사항, FTA 지원방안, FTA 교육, FTA 컨설팅

\* 본 연구는 2012년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임을 밝힙니다.

## I. 서론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개방형 통상 전략을 통해 수출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선진화를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전세계 7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며, 전체 교역량의 약 85% 정도가 FTA 역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변 경쟁국들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자원에너지 확보, 경제협력 강화, 시장개척 또는 시장방어 전략, 나아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FTA 확산과 심화는 準내수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광역화라는 FTA 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FTA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성과 확산을 위한 FTA 활용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평균 70~80%이상)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으며,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의 수출·수입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애로사항과 활용교육, 컨설팅 필요성 현황 등 실태분석을 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활용지원업무의 중추기관인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정재승(2006)<sup>1)</sup>은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기업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우리나라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이미 FTA 지원서비스를 각 기관의 주요사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정재승,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홍석빈(2009)<sup>2)</sup>은 아시아 개발은행의 조사를 인용하여 일본과 태국의 특혜관세 분야의 공공지원 비율이 각각 51%, 73.4%이며, 우리나라(27.5%)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밝혔다.

Chia(2010)<sup>3)</sup>는 FTA 체결국 간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전자무역을 활성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서류들의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Wignaraja et al.(2010)<sup>4)</sup>은 주요 아시아 국가별 FTA 활용연구에서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서류의 준비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인교(2010)<sup>5)</sup>는 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FTA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고, FTA 원산지 기준이 협정마다 각기 다르고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FTA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관한 계산이 FTA를 활용하는데 가장 복잡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을 포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FTA 관련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미진 등(2011)<sup>6)</su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원산지 기준이 3개 이상의 상이한 결정기준으로 갖고 있어 기업들에게 각각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자재 조달 및 생산 등 일련의 방법마련이 기업들의 부담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원으로 인해 FTA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호(2011)<sup>7)</sup>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관세혜택을 포기했을 때의 비용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소요인에 대해 정부의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에게 원산지 관리를 위해 드는 제반비용이 특혜관세로 인한 혜택보다 높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원료 및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고가의 장비들이 관세혜택으로 인해 더욱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원가를 낮추는 전략을 모

2) 홍석빈, “기업의 FTA 활용도 아직 낮다”, LG Business Insight, 2009.11.11.  
 3) Chia, S. Y., “Regional Trade Policy Cooperation and Architecture in East Asia”,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9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Tokyo.  
 4) Wignaraja G, Olfindo R., Pupphavesa, W., Panpiemras J., and Ongkittikul S., “How Do FTAs Affect Exporting Firms in Thailand?”,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5) 정인교, “중소기업의 FTA 활용”, 관세학회 발표자료.  
 6) 조미진,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pp.83-105.  
 7) 이준호, “FTA와 중소기업”, IE Magazine, 제18권 제4호, pp.38-42.

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2011)<sup>8)</sup>에서는 수출대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포기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및 유관기관, 각종 협회,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FTA에 관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주(2011)<sup>9)</sup>은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키워가는 수출지향적 중소기업들이 FTA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도성, 운영호(2011)의 연구에서는 FTA 시대에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정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영춘 등(2012)<sup>10)</sup>은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비용이 상승하고,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스파게티볼 효과가 증대하고, FTA 활용이 저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조규찬(2012)<sup>11)</sup>은 수출 중소기업을 토대로 한 설문에서 원산지 기준의 복잡성, 까다로운 발급절차, 거래처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협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대상 중소기업의 88%가 원산지 증명에 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박철구(2013)<sup>12)</sup>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저조한 주된 원인을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역량 부족과 원산지 정보 유통수준의 미비라고 밝혔다. 또한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렵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정보를 일일이 관리하기에 정보량이 너무 많고, 인력과 비용면에서 관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기업들의 FTA 활용이 직접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Hayakawa(2012)<sup>13)</sup>는 FTA 활용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들에서 FTA를 활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샘플링하여 분석한 결과, FTA를 활용하는데 고용 숫자보다는 수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8) 중소기업연구원,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수탁용역과제 최종보고서.

9) 이영주, "중소기업을 위한 FTA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경제, pp.40-51.

10) 김영춘, 성남길, 김정숙,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Vol.13, No.4, pp.23-42.

11) 조규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배재대학교 컨설팅 대학원.

12) 박철구, "원산지 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13) Hayakawa, K., "Impact of FTA Utilization on Firm Performance", In Cause and Consequence of Firm's FTA Utilization in Asia, BRC Research Report No.9, Bangkok Research Center, IDE-JETRO, Bangkok, Thailand.

밝혔다. 또한 기업이 FTA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은 관세의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강다현(2013)<sup>14)</sup>은 기업의 수출능력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수출능력 증대를 위해서는 FTA 전문컨설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권(2013)<sup>15)</sup>은 FTA 체결의 주된 목적이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과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기업의 FTA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 요인과 기업의 내부자원 요인이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표 1> FTA 활용 선행연구 시사점

저자	시사점
정재승(2006)	수출지원기관에 FTA지원서비스가 주요사업에 포함됨
홍석빈(2009)	우리나라보다 일본, 태국의 특혜관세 공공지원비율이 2~3배 높음
Chia(2010)	FTA 체결국간 전자무역 활성화가 필요함
Wignaraja et al.(2010)	아시아 국가들도 과도한 원산지 증명으로 FTA 활용에 부정적임
정인교(2010)	원산지, 물류비, 해외시장정보 제공이 필요함
조미진 등(2011)	각각 원산지 기준이 달라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나타남
이준호(2011)	특혜관세 혜택비용보다 지불비용이 높아 FTA 활용저해요인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연구원(2011)	특혜관세를 포기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임
이영주(2011)	수출지향적 기업이 FTA 수혜 혜택이 높음
나도성, 윤영호(2011)	전문인력과 정보의 중요성 강조
김영춘 등(2012)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엄격성이 FTA 활용률 저하요인이 됨
조규찬(2012)	거래처 비협조 등도 FTA 활용률 저하요인이 됨
박철구(2013)	원산지 정보유통수준이 미비함도 FTA 활용률 저하요인이 됨
Hayakawa(2012)	FTA 활용에서 고용 숫자보다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침
강다현(2013)	기업 수출능력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침
심재권(2013)	최고경영자와 내부자원 요인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침

14) 강다현, “수출중소기업의 시장환경, 수출능력, FTA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FTA 컨설팅 활성화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15)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Ⅲ. FTA의 확산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EU, 미국, ASEAN, EFTA 등 9개 FTA를 체결했으며, 추가로 13개 경제권과 협상중이거나 FTA 체결을 검토 중인데, 그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중이다.<sup>16)</sup> 향후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지역 등 전세계 약 70여 개국, 전세계 인구의 71%, 전세계 GDP의 91%에 달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규모의 FTA Hub & Spoke Network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FTA의 확산 및 심화가 무역기업에게 미칠 영향의 핵심적인 동인은 準내수시장의 확대와 광역적 경쟁심화로 압축되며, 이는 기업들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FTA는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인한 상대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해 회원국 내에서 수출입이 증가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촉진-생산성 향상-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으로 통해 고용창출,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로 인해 기대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개방-무역확대-경쟁심화-규모의 경제/기술혁신-경쟁력 강화-생산-소득증가-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FTA 체결 및 심화는 경쟁력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 생산요소와 자원의 산업간 이동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발생 및 계층간 소득 불균형 확대 가능성 같은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FTA의 확대심화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대국과의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이 일반화되면서 역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생산 감소, 실업증가 등 피해가 속출하는 등 패자산업(Losers Groups)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산업구조 조정이 요구된다.

〈표 2〉 FTA 확대 및 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구분	부정적 현상
경쟁력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	- 경제통합이 진척되면 경쟁력이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승자산업과 패자산업간 이해관계 대립 - FTA로 인한 승자/패자는 FTA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16)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2013.6.27. p.1

구분	부정적 현상
생산요소와 자원의 산업간 이동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발생	- 경쟁력 취약산업 및 비효율적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 실업문제 발생 - 구조조정비용은 고용감소 생산감소 세수감소 등 사적 사회적 비용으로서 산업간 생산요소의 이동 등에 의해 발생
계층간 소득 불균형의 확대 가능성	- 경쟁심화 및 기술혁신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간의 소득격차 발생

\* 출처 : FTA 확산과 중소기업부문의 대응전략(중소기업연구원, 서정대, 박순찬, 2004)의 재정리

##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FTA 활용의도<sup>17)</sup>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으로 볼 때, 생산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전체의 51.1% 및 47.4%를 차지하고, 고용은 전체의 86.8%~88.4%를 차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비중이 매우 높아 FTA 확산 및 심화로 부정적인 효과들이 확대되는 경우,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한 반면, 전체 수출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1992년 대비 2010년 5배 이상 크게 성장하였으나 전체 수출대비 수출비중은 과거 40%대에서 2010년 33%에 그쳤다. 현재 중소기업은 개발도상국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소기업은 과거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수출비중이 6:4 수준이었으나 2010년 3:7 수준이다. 대아시아 수출비중은 중소기업이 64.7%인 바,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출 모두 중공업 제품에 비중이 편향되어 있다. 중소기업 수출에서 과거 경공업 제품비중이 중공업 제품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나 2010년 중공업 제품의 비중이 2/3수준을 차지한 바, 중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기업들은 미래에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기업 규모별 FTA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sup>18)</sup>, 대기업은 FTA 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하다. 중소수출기업은 여전히 FTA

17) 본 연구에서 'FTA의 활용'이라는 용어 보다 'FTA의 활용의도'라는 용어를 사용코자 한다. '활용'이라는 의미는 제도나 정책 등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활용의도'라는 것은 FTA로 인한 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하는 과정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2013.6.27. p.p.3-5.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 수출기업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기업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리가 미흡하다.

셋째, 업종별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은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 영세기업이 다수인 업종이거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FTA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 선진국과는 높은 수준의 수출활용률을 보이는 반면,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 3. 중소기업의 FTA 정부지원정책

우리나라의 FTA에 관한 정부지원정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해외 홍보를 위해 KOTRA는 FTA 체결국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sup>19)</sup>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기준 등 제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15개 광역시 및 지자체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업종별 관련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FTA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교육,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방식 등이 각각 다르고 복잡한 편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것이다. 이에 정부는 FTA 지원서비스 허브(Hub)로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수출기업들이 FTA로 인한 특혜관세 분야의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민관합동기구를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FTA를 체결로 인해 복잡해진 원산지 판정과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제공이 필요하고, FTA 협정별, 품목별로 결정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하게 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게 나타났다. 또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에서 요구사항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5년간 직접 보관하는 것도 중소기업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협력업체에 대한 FTA 활용지원 필요성, 2013.8.29



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혜택에 관한 사후검증자료를 전자문서로 저장,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케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시스템은 이미 수출 중소기업에게 편리성과 비용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산지 증명발급시스템 중 FTA-KOREA는 국가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에 가입후 원산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되었다.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고 필요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류들을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기록물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에 어려움도 있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기입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스템 활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 또한 운영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둘째, 원산지 증명서류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원가증명서, 원재료 구입증빙서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업간 생산원가 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현행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관세청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보급한 FTA-PASS가 있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개발한 FTA-KOREA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의 차이점과 어느 것의 활용도가 유익한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이에 Lacouvou et al.(1995)<sup>20)</sup>의 미국 정부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통관업무를 중소기업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현재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처럼 강력한 거래업체가 협력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유하는 전략이 있고, 둘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보상전략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케 하는 강요전략이 있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강제로 시스템을 도입케 한 강요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20) Lacouvou et al.(1995),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Small Organizations: Adoption and Impact of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9, No. 1.

#### 4. 중소기업의 FTA 활용상 애로요인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활동영역 및 범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기업의 규모분포에 따라 경제성과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등 국제화의 경우에 정보수집과 분석, 자본력, 전문 인력 등의 면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불리하다. 리스크 및 비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또는 부서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가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활용, 정보수집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판매처로는 '타기업 주문납품' 비중이 높고, '수출'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제품이 경공업 제품에 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자동차·트레일러의 경우 95.2%인 반면, 의복·의복 악세사리 및 모피업종은 6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시장 확보나 FTA 활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시장에 안정적인 납품 대기업이 존재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대기업과의 납품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상 여러 애로요인을 겪고 있다. 첫째, 대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준비,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 협정별 원산지 산정기준의 상이함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데 중소기업이 가격, 생산 정보 등 기업 비밀유출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히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주문자생산(OEM)방식의 기업들은 제조원가가 대기업에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된다는 정부정책과 반대 방향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FTA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부재를 애로점으로 꼽았다. 셋째, 이미 낮아진 특혜관세의 실효성을 지적되어 기업들이 굳이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상대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우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된 애로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는 FTA 체결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점차 상대국 정부에 위임하는 간접 검증방식<sup>21)</sup>도 도입되고 있어 활용에 큰 불편을 주는 항목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인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각각 아세안 국가, 터키, 인도 등 본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잘 활용하고 우리나라처럼 FTA 환경하에서 적절한 대응시스템이 부족

21) 간접 검증방식이란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등 사후 보관자료나 원산지 위반을 요구할 시에 수출국 관세청 등에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직접 검증방식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터키의 경우, 협정관세 혜택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전 수조사나 일부러 통관을 지연시켜 업체들에게 관세혜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각 체결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원산지 관련 각종 정보 및 전문가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뉘는데 주요 문제는 실질변형기준이 세분화되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조미진 등(2011)은 원산지 기준을 산정하는데 복잡한 계산법도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4~6개의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파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FTA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은 요연한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7개의 FTA를 대상으로 품목들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수출품목이 4~5가지의 원산지 기준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 품목의 58%에 해당하며, 6개 이상도 16.8%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 IV. FTA 활용과 교육·컨설팅 수요 실태분석

본 연구는 2013년 2월 한달동안 무역기업 중 FTA 활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의 150개 기업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FTA 활용 애로사항 분석

무역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과 FTA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FTA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서류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과 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구비서류의 복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혜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역기업은 각종 서류 준비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그밖에 세계적으로 각국의 FTA 추세로 관세가 많이 낮아져 FTA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있었고, 원가 노출 등에 대한 우려, 현지 바이어가 잘 모르고 있다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타났다.

〈표 3〉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복수응답)

FTA 활용 애로사항	빈도	비율
서류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73	40.1
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구비서류의 복잡성	67	36.8
원가노출 등의 원인으로 서류구비 및 작성 꺼림	38	20.9
상대국이 이미 저관세, 무관세로 FTA 실효성 상실	30	16.5
현지 바이어가 FTA의 실효성에 대해 잘 모름	25	13.7
대기업에 직접 납품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음	22	12.1
기타 또는 무응답	9	4.9

\* 전체응답수는 150개

둘째, FTA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의 절반인 48.9%가 FTA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는 무역기업들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FTA 지원기관의 윈스톱(One-stop)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무역기업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들의 비협조적인 체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무역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고, FTA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부의 예산 증액,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응답했다.

〈표 4〉 무역기업의 FTA 서비스 개선방안(복수응답)

FTA 서비스 개선방안	빈도	비율
FTA 서비스를 한군데로 집약한 사이트 필요	89	48.9
FTA 활용에 관한 중소기업 직원 교육 필요	62	34.1
1:1 지원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48	26.4
중소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컨설팅 필요	42	23.1
해외 바이어 발굴서비스 필요	33	18.1
기타 또는 무응답	4	2.2

## 2. FTA 활용 교육 필요성 분석

무역기업의 FTA 원산지 관련 교육현황은 전체응답자의 30.1%는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70%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보다는 교육에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TA 원산지 교육이 여전히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원산지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원산지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이론과 실습을 혼합한 집체교육을 가장 선호(64.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이론+실무+컨설팅을 혼합한 기업 방문형방식(64.1%)을, 그 다음은 이론과 사례 중심의 집합교육(55.9%)과 업종별 소규모 세미나 형식(53.9%)순으로 각각 선호도를 보였다. 무역기업은 FTA 원산지분야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해외마케팅 및 원산지 교육 니즈분야(복수응답)

교육분야	세부 카테고리	비율
FTA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시장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 시장성 분석	59.3
	신규시장 진입전략 수립	55.1
	시장경쟁구조와 산업구조 분석	50.0
	STP-4P Mix 전략 수립	57.1
	지역별 유망품목 바이어, 전시회 정보제공	64.1
FTA 원산지 관리	협정세율 및 특혜관세적용절차와 정보	60.2
	원산지결정 및 증명서류의 보관관리	65.6

한편,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에 관해서는 4~8시간 또는 16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나타나 상당한 시간동안 심도 깊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용은 무료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FTA 활용 컨설팅 필요성 분석

FTA 원산지 컨설팅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FTA 원산지 컨설팅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40%는 1회 이상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에 비해 컨설팅 기회는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사 등 FTA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FTA 원산지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았다거나(17.1%), 특혜관세대우 원산지자격도 획득되지 않았다(27.6%)는 응답이 적지 않아 불완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해외마케팅 컨설팅 니즈 조사에서는 FTA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 니즈(Needs)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해외마케팅 및 원산지 컨설팅 니즈분야(복수응답)

컨설팅 분야	세부 카테고리	비율
FTA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시장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 시장성 분석	54.8
	신규시장 진입전략 수립	55.1
	시장 경쟁구조와 산업구조 분석	48.8
	제품 적응화와 소비자 분석 컨설팅	46.8
	STP-4P Mix 전략 수립	54.4
FTA 원산지 관리	협정세율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와 정보	59.4
	원산지결정 및 증빙서류의 보관 관리	64.4
	부가가치 기준 컨설팅	51.2
	세번변경기준 및 HS품목분류 컨설팅	52.8

FTA 원산지 컨설팅 접근법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대행형 컨설팅 + 역량강화형 컨설팅을 가장 선호(6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FTA 활용 역량강화형 컨설팅(61.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팅기간에 대한 선호도는 5일 이내 39.1%, 5~10일은 23.0%, 10~30일은 14.1%, 1~3개월은 12%, 3개월 이상은 5.6%로 각각 응답하였다. 또한, FTA 원산지 컨설팅 비용은 무료컨설팅을 선호하는 기업이 61.3%, 10% 부담이 32.3%로, 30%부담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에 대한 접근법은 기업참여형 컨설팅을 가장 선호(61.9%)하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한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FTA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 지원방안

### 1. FTA 활용전략

임규찬(2006)<sup>22)</sup>은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문화적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보다는 성과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무역기업이 FTA 활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성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특정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

22) 임규찬, “생산부문의 하위문화 특성과 회계통계시스템 간의 관련성이 생산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회계연구 제 16집, pp.181-208.

만, 기업 스스로는 정부의 지원이 최종 목표인 기업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 활용실적 제고에 주안점을 둔 기존의 FTA 교육 및 컨설팅 덕분에 FTA 활용률은 상당히 개선된데 비해, 이같은 활용률이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매출 확대 같은 해외수출 성과로 유효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해외수출 성과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FTA 원산지 및 해외마케팅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무역기업은 그간의 FTA 원산지 교육과 컨설팅의 양적확대에 힘입어 교육, 컨설팅에 노출이 많이 됐으나, 아직까지 제도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대상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역기업은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니즈(Needs)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FTA 원산지 분야와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중심형, 수출지향형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FTA 활용상 주요 문제점 및 해결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무역기업의 FTA 활용시 주요 문제점 및 해결과제

문제점	해결과제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의 복잡	서류 발급 및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 부족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
FTA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실효성 부족	정보 공개 및 연계
기업비밀 유출우려	기업비밀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검증에 대한 피해 우려	현재까지 없음
정부지원 부족	수요자 중심의 정책마련
상대국 정부의 통관절차 등 까다로움	정부차원에서의 대응
FTA 특혜관세보다 과도한 비용발생	

무역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전문가 육성 필요가 있다. 단기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원산지 전문가들이 여러 종류의 복잡한 원산지를 결정하여 무역기업에게 제대로 컨설팅 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업종별, 분야별로 무역현장의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은퇴인력을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정부는 무역기업이 해외경험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많은 컨설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과정과 원산지전문가 교육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개편하고 꾸준한 추가교육을 통해 현재의 관세사처럼 심층적인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을 해야 하므로, 무역기업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자문서 시스템이 잘 활용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급하는 웹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관세청이 보급하는 FTA-PASS 시스템의 경우, 원산지판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출중소기업에게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일부 국가들과는 상당부분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웹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5년간 보관업무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활용시 무역기업이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는 정보의 부재라기보다는 각 지원기관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단편적이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역기업은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의 기능을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FTA 활용 교육·컨설팅 지원방안

최근까지 FTA 활용교육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역기업은 FTA 원산지 이행의 법적 정확성과 원산지 활용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FTA 원산지 교육은 수요자 지향적, 수출지향적, 실무지향적, 현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은 FTA 특혜원산지 활용 측면에만 치우쳐 FTA 활용이 해외 수출성과와 유효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FTA 체결지역에 대한 신규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해외 마케팅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주로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만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중소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에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Process와 Tool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까지 FTA 원산지 컨설팅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전반적인 컨설팅 접근기회 부족, 중소수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소외, 컨설팅의 불완전성, 컨설팅 성과관리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



라서 FTA 원산지 컨설팅의 개선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기업의 컨설팅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고객의 문제해결 지향적, 실무지향적, 현장지향적, 수출성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FTA 유관기관들이 제공한 FTA 컨설팅의 문제점은 단기 실적 중심의 FTA 원산지활용률(원산지증명서 발행실적) 측면만을 강조된 나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기회요인 활용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컨설팅이 배제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해외시장점유율, 해외 수출매출 증가율 같은 해외수출 성과로 유효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 활용 컨설팅에는 원산지컨설팅 뿐만 아니라 FTA 체결지역에 대한 신규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컨설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마케팅 컨설팅 분야는 STP-4P Mix 전략과 관련하여 약 20여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FTA 활용지원형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경영컨설팅 사업을 일부 개편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마케팅 컨설팅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 마케팅 애로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종합마케팅 컨설팅을 분할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종래의 고비용, 장기간 소요됐던 마케팅 컨설팅지원제도의 폐단을 해소하는 한편, 저비용 단기간의 FTA 활용지원형 해외마케팅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 3. FTA 활용지원형 인프라 구축 및 확보방안

효율적인 FTA 활용지원을 위해 무역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사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FTA 활용을 통한 신무역의 창출, FTA 활용의 최적화, FTA 활용성과의 확산과 FTA를 통한 혁신제고를 위해서는 FTA 활용지원형 인프라 구축과 확보를 통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FTA 유관기관에서 구축된 FTA 관련 인프라는 주로 FTA 정보 비대칭 해소 및 FTA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인프라가 대부분이다.

수출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추적인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에는 FTA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FTA 이행 단계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FTA 활용역량강화 지원과 FTA 수출성과 확산과 FTA를 통한 혁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은 FTA 활용지원형 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절실하다. 첫째, FTA 대응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한 FTA 대응전담조직구축, 둘째, 글로벌 교역협력 및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 등 FTA 글로벌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FTA 글로벌 협력센터 구축, 셋째, FTA 수출경쟁력 및 교역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국제무역센터 구축이다.

### 1) FTA 대응 전담조직의 확대

중소기업청은 농림부, 기재부, 관세청, 산업부 등의 FTA 활용 제고 또는 FTA 국내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들과 관계없이 제조 및 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지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FTA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FTA 대응 전담조직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같은 전담조직구축 후 중소기업 대응수요 분석 및 대응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대응정책 및 국내대책 개발, 세부 추진과제들을 설정, 실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글로벌 협력센터의 신설

글로벌비즈니스 협력센터(Global Business Cooperation Center)는 FTA 시대의 무역기업의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FTA 체결국의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 교역협력, 해외진출 비즈니스프로젝트 지원, 기술인력 교류, 중소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지원, 해외비즈니스 진출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경영, 해외진출 Costing Simulation 및 교육, 컨설팅지원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창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치창출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 3) 전자무역시스템과의 연계

현재 운영중인 전자무역시스템과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보다 완벽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sup>23)</sup>에 전자무역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수혜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전자무역사업은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연계시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운영규정 및 세부 운영지침” 등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방법 등을 보급하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정부가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해마다 그 수혜국을 넓혀 나가는 등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형 경제발전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미리 한국식 FTA 기준을 마련해 주는 선순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 VI. 결 론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최단 기간에 경제권역과 FTA를 체결한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국가 및 경제권역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협정 규정은 무역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안겨줄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유관기관에서 무역기업의 FTA 활용에 관한 애로요인을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무역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감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역기업이 FTA별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원산지 검증 요구 건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무역기업의 서류준비 업무가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고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각 7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가 2010년 15건, 2011년 90건, 2012년에는 무려 229건으로 증가했고, FTA 발효대상국이 증가할수록 원산지 검증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관세장벽의 확장을 볼 수 있다. 원산지 증명처럼 눈에 보이는 제도는 점차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보이지 않는 관행, 부대비용, 복잡한 행정절차, 허가 및 검역의 지연, 불필요한 인증 검사 요구 등 비관세장벽이 FTA 활용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무역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정보의 통합도 필요하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원산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마케팅 정보의 통합도 중요하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방향을 수요자 지향적, 수출지향적, 실무지향적, 현장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원산지 컨설팅위주에서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카테고리 로 분류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FTA는 다양한 국가와 협정별로 체결되고 있어 무역기업도 활용되는 협정에 따라 품목이 많이 다르다. 이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기업에 따라, 업종별, FTA 협정별 세분화된 연구를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영춘, 성남길, 김정숙,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Vol.13, No.4, pp.23-42.
- 박철구, “원산지 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협력업체에 대한 FTA 활용지원 필요성, 2013.8.29
-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영주, “중소기업을 위한 FTA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경제, pp.40-51.
- 이준호, “FTA와 중소기업”, IE Magazine, 제18권 제4호, pp.38-42.
- 임규찬, “생산부문의 하위문화 특성과 회계통제시스템 간의 관련성이 생산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회계연구 제16집, pp.181-208.
- 정재승,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규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배재대학교 컨설팅 대학원.
- 조미진,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pp.83-105.
- 중소기업연구원,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수탁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Chia, S. Y., “Regional Trade Policy Cooperation and Architecture in East Asia”,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9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Tokyo.
- Hayakawa, K., “Impact of FTA Utilization on Firm Performance”, In Cause and Consequence of Firm's FTA Utilization in Asia, BRC Research Report No.9, Bangkok Research Center,

IDE-JETRO, Bangkok, Thailand.

Iacovou, L. C., Benbasat, Lzak. and Alber, S.(1995),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Small Organizations: Adoption and Impact of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9, No. 1.

Wignaraja G, Ofindo R., Pupphavesa, W., Panpiemras J., and Ongkittkul S., "How Do FTAs Affect Exporting Firms in Thailand?",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FTA PASS <http://www.ftapass.or.kr>

## ABSTRACT

### A Study on difficulties and support measures of FTA utilization in Korean Trading Firms

Jason Chung\* · Jeong Yoon Say\*\*

The FTA utilization rate in Korea current,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utilization rate is low overal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ASEAN FTA, etc. remain at 30% level,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has emerged as a matter of urgency. In addition, the proportion receiving the FTA preferential tariff trade companies have also been assessed as weak, improve the utilization ratio is in the policy issue of maximum.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 trading enterprises, and analyzes were performed in reality. And to understand the FTA bottleneck matters of trade enterprises, and was also studied improvement plan consulting and education FTA utilization of trading partners. This has a purpose to provide data useful measures making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ibution of export expansion trade compan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FTA as a result of this study, enhancement of FTA policy, to strengthen the support base of FTA policy.

**Key Words** : FTA utilization, trade firms, FTA complaint, FTA support measures, FTA education, FTA consulting

---

\* Research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